



비영리기관과 함께 하는

제2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

주 최 삼일미래재단 주 관 삼일회계법인 후 원 매일경제신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공인회계사회 SBS

SAMIL | 삼일미래재단

삼일투명경영대상 제정의 뜻

삼일투명경영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시상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운영되는 우수 비영리법인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투명경영 요소는 기부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설립목적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시상함으로써 해당법인이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삼일투명경영대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 및 기준을 통해

국제적인 권위를 갖는 상으로 발전하여 선정된 법인들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우수사례로서 인정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식 순

개 식

이사장 인사말

축 사

심사위원 소개

심사 보고 및 심사평

시 상

수상소감

수상기관 사례발표

폐 식

수상기관 기념촬영

이사장 인사말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삼일미래재단은 2년전 3월, 삼일회계법인이 기본자산을 출연하여 설립되고, 삼일 임직원의 개인기부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의 교육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모두 다 함께 희망찬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들에게 삼일회계법인의 전문성을 살려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실시한지 올해로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숫자가 3만여 개, 그리고 기부금 규모는 9조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공익법인의 숫자나 기부금 규모로 보아서는 너무 적다고까지 말 할 수는 없겠지만, 자산 규모 10억 이상 공익법인의 회계공시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국세청을 통하여 시행 되었을 정도로 회계투명성이나 정보공개 면에서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부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업이 출연한 기부금이 3조 4천억원이며 개인 기부금이 5조 6천억원 정도이나, 개인기부금 가운데 80%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여서, 그 외의 일반 목적의 개인 기부금 비중은 선진국에 비하여 극히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낮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문화 비율이 높아지고 나눔의 실천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영 투명성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희 삼일미래재단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설립목적에 훌륭하게 추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시상함으로써, 그러한 법인들이 사회로부터 더 높은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많은 다른 비영리 공익법인들에게는 벤치마크할 수 있는 롤모델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 상을 계기로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사회적 책무성뿐만 아니라 투명한 운영의 중요성도 동시에 인식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기부문화가 점차 더 많은 개인들이 공적 기부에 활발히 참여하는 선진국형 개인기부 문화로 바뀌면서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금년 5월에 서류를 접수하고 총 세 차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윤병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고,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실시한 계량 부문 심사를 거친 자료를 토대로 서울대학교 최중학 교수님과 세종대학교 황호찬 교수님께서 비계량 부문까지를 포함하여 심사해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허성관 前 행정안전부장관님, 주인기 연세대 교수님, 박오수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재단 임원 여러분께서 최종으로 심사하여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윤병철 심사위원장님과 여러 심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하게 되신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후원기관으로 도움을 주신 매일경제신문, S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리고 아낌없는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 태 식

삼일미래재단 이사장



축사



먼저 제2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하시게 된 기관들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응모해 주신 많은 기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자기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에 응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능히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 50년 동안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일념으로 경제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이제는 어엿이 선진국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최빈국에서 연소득 미화 2만불에 이르는 경제신화를 이루는 동안, 이러한 경제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게 된 것을 우리 모두는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나누는 것이 경제발전의 혜택을 좀 더 누린 다수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실천에 옮겨지게 하려면 우선 이들이 믿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공익 기관들이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 공익기관의 신뢰성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꽃 피우는 필수 요소입니다.

삼일미래재단에서 매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시상하는 것은 이러한 뜻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은 단순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투명경영을 하는 공익단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비영리 공익단체들이 좀 더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익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조성되는 환경을 만들고자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뢰감 조성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꽃피도록 하는데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삼일미래재단의 서태식 이사장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삼일미래재단을 뒷받침하시는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꽃을 피우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회를 다함께 만들어 갈 때까지 삼일회계법인과 삼일미래재단이 지속적으로 헌신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번에 제2회 삼일투명 경영대상 시상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 인 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 회장
前 한국기업윤리학회 회장
前 한국경영학회 회장

심사보고 및 심사평



삼일투명경영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정보공개 투명성과 사업 운영의 책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시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은 서류심사를 포함하여 삼일회계법인 전문가들의 1차 심사, 서울대 최종학 교수, 세종대 황호찬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2차 심사, 그리고 삼일미래재단 이사회의 3차 심사를 통해 엄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최종 결정에 앞서 수상후보로 선정된 6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위원들을 대표하여 여러분께 제2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심사 기준과 심사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심사 기준은 재무정보를 포함하여 비영리법인의 정보 공개에 대한 충실성과 공개된 정보의 양질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정보 부분** 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기본 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 **필요 정보 부분** 기부금의 모금과정과 쓰임새, 자원봉사자 활동 등 비영리법인 활동의 주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 **설립 목적 부분**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가
- **조직 운영 부분** 법인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내부적 위험요소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 **사업 실적 부분** 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사업 실적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가
- **재무 성과 부분** 비영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심사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에는 매우 우수한 기관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관계로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하는 3차 심사가 전년도에 비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비영리기관들의 정보 공개 수준이 한층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심사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회 삼일투명경영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정보의 적시성과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였으며,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공시한 것이 큰 강점으로, 각 단계별 심사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 윤리헌장을 홈페이지상에 공시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들 통해 잠재적인 기부자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였다는 점 역시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취지와 부합하여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법인의 이사회 개최 정보와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계획을 이해하고 그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아깝게 수상범위에는 들지 못했으나, 함께일하는재단은 계획과 실적의 비교분석 결과를 정보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점에 있어 타 법인의 모범이 될 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JA Korea는 법인의 홈페이지와 트위터, 블로그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관심을 확대하는 것을 물론, 관리 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법인을 포함하여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비영리법인들이 투명경영을 위해 기울여 오신 노력에 치하를 보내며, 오늘의 좋은 사례들이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을 확립하는데 좋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돕기위해 시상식을 마친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한 법인들에게 개별 심사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상을 받게되는 법인들에게 거듭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으로 제2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병 철

삼일투명경영대상 심사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수상기관 사례발표

제2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기관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I . Save the Children은?



Save the Children은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Global Independent NGO로서, 1919년 영국의 에글렌타인 켄(Eglantyne Jebb, 1876~1928) 여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아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다루는 대부분의 Issues를 다루고 있습니다.

1923년 2월 에글렌타인 켄 여사는 아동권리선언문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1924년 국제연맹(현재의 UN)에 의해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으로 선포되고, 1989년에 작성된 UN 아동권리협약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은 이렇게 만들어진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권리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전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Save the Children은 현재 29개 회원국(약 2,000여 직원)이 힘을 합하여 전세계 120여 개 나라의 사업장(약 12,500여명 직원)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 후원금 규모는 약 13억불입니다.

II. Save the Children Korea 소개

● 설립 목적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Save the Children Korea)는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 각종 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동을 돕고 아동이 양육되고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운영 철학

- 비전(VISION)
우리는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
- 미션(MISSION)
우리는 전 세계 아동을 위한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변화를 이뤄냅니다.

● 주요 연혁

- 1953년 - 세이브더칠드런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가 한국전쟁 긴급구호를 위해 외원단체로 창설되어 부산에 한국지부를 설립하여 전쟁 구호사업 착수
- 1981년 - Save the Children Int'l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전환
- 2004년 - 「한국세이브더칠드런」과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이 합병하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Save the Children Korea)」로 법인 명칭 변경
- 2010년 - 법인 본부 및 7개 지부, 국내시설 29개, 해외사업장 13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운영 받음

● 주요 아동지원 프로그램

<p>아동권리교육 및 옹호 (Advocac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교육 • 긍정적인 훈육교육 • 아동권리교육 교재/도구 제작 보급 • 아동권리관련 연구조사사업(UN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UN연계 동아시아 체벌조사, 아동권리 모니터링 등)
<p>아동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치료 • 결연후원: 결식아동지원, 빈곤/학대/한부모/조부모 가정의 급식비 지원 등 • 지역 복지관 운영: 위기가정 아동 일시 보호 등
<p>아동발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족 아동지원 • 저소득 발달장애아동 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 영유아 안전/발달 지원 • 아동/청소년 공부방 운영 • 약물 오남용 예방 치료사업
<p>보건/의료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해외 의료지원(선천성 심장병을 포함한 선천성 기형, 희귀난치질환, 소아암 등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 • 빈곤아동 소액의료비(검사비 및 소액치료비) 지원 • 저개발국가 의료진들을 위한 의사초청연수 실시
<p>해외 보건/의료 및 교육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영향지역 아동교육(“Rewrite the Future” 캠페인 등) • 5세 미만 영유아 보건/의료(“Every One” 캠페인 등) • 북한어린이 영양/보건 지원 등
<p>긴급구호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호지역 물품 등 지원

● 주요 캠페인 소개

<p>희망 그리기 (2008년 3~6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브더칠드런 글로벌 캠페인 “Rewrite the Future(분쟁영향 지역 아동 교육지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 • 분쟁의 영향을 받는 23개국의 약 천백만 명(300만 명: 초등학교 교육 수혜, 800만 명: 더 높은 질의 교육 수혜)의 아동에게 교육기회 제공
<p>착한 도시락 (2009년 4~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캠페인 전개
<p>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2007년 11월~ 진행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세이브더칠드런 “State of the World Mother’s Report 2006” • 전세계 1개월 이내의 신생아 사망자 수: 400만 명(한국에서 1년간 태어나는 신생아 수의 10배), 이 중 절반의 신생아들은 24시간 이내 사망하지만 4명 중 3명의 신생아 사망은 매우 쉽게 예방 가능 예) 폐렴 항생제, 보온용 털모자 <p>시즌 1 (2007.11~2008.02): 25,000개의 모자를 수합해 아프리카 앙골라, 동남아시아 라오스, 캄보디아에 전달함</p> <p>시즌 2 (2008.10~2009.03): 약 80,000여 개의 모자 수합 및 3만여 개의 모자키트 판매됨, 2009년 4월 이후 아프리카 말리에 전달</p> <p>시즌 3 (2009.10~2010.02): 2010년 2월 이후 아프리카 말리에 모자와 함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전달</p> <p>시즌 4 (2010.10~2011.02): 진행 예정</p>
<p>지구촌 5세 미만 영유아 살리기 캠페인(Everyon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매년 880만 명의 영유아가 5세 이전 사망하며 이 중 40% (368만 명)가 출생 1개월 이전에 사망, 이 중 500만 명이 예방 및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함(매일 영유아 2만 6000명 사망, 3초에 1명의 영유아 사망) • 영유아 사망은 주로 예방 및 치료 가능한 원인에 기인하며, 근본원인의 1/3이 영양실조(malnutrition)임 • 목표: 영유아를 위한 기초 보건의료 혜택 확장, 모자보건의 향상,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인 교육 강화, 의약품, 모기장, 영양식 제공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아동사망률의 2/3를 감소시켜 약 600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Ⅲ. 책무성과 투명경영 실현

1. 비영리기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변화

- 자비심과 정의심 실천 조직 → 공익달성을 위한 공적 존재
- 비영리기관의 구성 및 재무상태와 사업성과에 대한 관심도 고조

2. 후원금에 대한 운용 및 결과 공개 요구 강화

- 모든 후원자에게 공평한 정보 접근성 제공과 투명성을 통한 후원자와의 신뢰관계 유지

3. 후원자들이 요구하는 더 높은 책임감, 더 큰 효용 및 지속가능한 변화 창출 사실에 대해 적절히 공유하고 대응할 필요성 증대

● 필요성

비영리단체인 Save the Children도 다음의 사유 등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종전에는 자비심과 정의심을 실천하는 조직이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에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공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그 구성 및 재무상태와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도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비영리단체는 후원자 즉,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을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고 또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모든 후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평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후원자와 완전한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후원자들은 비영리단체에게 더 많은 책임감, 더 큰 효용,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결과의 증거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구체적인 가치 창출에 있어서 국제 NGO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윤리규정

• 운영철학 반영

Save the Children은 비영리기관의 윤리적 운영과 활동을 통해 후원자를 비롯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검증 가능한 결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전반에 Save the Children의 비전과 미션 수행을 위한 5대 행동가치인 책임, 포부, 협력, 창의 및 정직을 운영철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아동보호정책에 관한 행동강령」 운용

Save the Children의 모든 직원은 「아동보호정책에 관한 행동강령」에 따라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 성적 학대를 포함한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정책에 관한 행동강령」

모든 세이브더칠드런 직원들은 다음의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직원 및 관련자들은 결코:

-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신체적인 공격 혹은 학대를 가하지 않는다.
- 아동과 신체적,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아동과 착취나 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아동을 상대로 학대하거나 학대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이고 학대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제안 또는 충고를 하지 않는다.
-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보호자 없이 밤새 아동의 집에 머무르지 않는다.
- 아동과 같은 방이나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 하지 않는다.
- 아동이 하는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묵과하거나 그에 동참하지 않는다.
- 아동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창피를 주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도 행하지 않는다.
- 아동들을 차별하거나 특정 아동을 편애하지 않는다.

이는 광범위하게 혹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직원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나 잠재적으로 학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동과 접촉하는 직원과 관련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 위험성 있는 상황들에 대해 숙지하고 그에 대처한다.
-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와 작업장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 아동과 함께 있을 때는 가능한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 어떠한 문제나 우려사항이라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개방적 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나 잠재적 학대 행위가 문제시 되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도록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다.
- 아동에게 직원이나 관련자의 연락 정보를 알려주고, 어떤 문제라도 논의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아동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동의 권리,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문제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

- 단독으로 아동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 특히 아동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

• 운영규정 준수

- 법인의 책무 완수와 효율적 운영 및 투명성 유지를 위하여 운영규정을 제정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회계 규정 및 후원금관리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투명하게 준수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전결권 하부위임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 전결권자 본인이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는 다른 동급의 전결권자가 공동 결재토록 함으로써 경비지급의 투명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취업규칙, F2F사업센터 운영규정, 국외파견직원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인사위원회규정, 여비규정, 예산·회계 규정, 후원금관리 규정, 후원금관리업무 취급세칙, 문서 처리 규정, 위임업무 전결처리취급 세칙

• 내부 감시 제도

Save the Children Korea는 2003년부터 ERP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 및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내부 공시를 통한 감시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 연1회 법인감사(공인회계사)와 관리부 자체 감사(시설포함)
회계공개	• 내부회계통제 및 업무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전 직원 회계 시스템 접근 가능
사업평가	• 완료된 사업에 대한 건별 평가로 사업성과와 사업비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 높임
외부감사	• 연1회 공인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로 투명성 검증 받음 • Save the Children Int'l 대상 후원금관리내역 및 감사결과 보고
정부보고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주무관청 대상 보고 → 투명성 유지 • 연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 주무관청 대상 보고

● 외부 정보 공개 제도

Save the Children Korea는 내부감시제도에 더하여 외부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후원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된 재원을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였음을 보고하고 또 그 정보를 공평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보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투명성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홈페이지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운영철학 및 이사진 공시 • 추진 중인 사업 내용 등 공시 • 내·외부 감사결과, 재무정보, 국제청 공시시스템 안내 등을 법인 홈페이지(www.sc.or.kr)에 공시 • 소식지, 연차보고서 및 최근 각종 관련 뉴스 공시 → 후원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후원자인 일반인에게도 정보 제공 • Webzine 운영으로 후원자 및 일반인과 공감대 형성 - 현장 속 이야기, 캠페인 속 이야기, 가슴 속 이야기, 만남 속 이야기
<p>국제청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청의 「공인법인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법인의 일반정보 및 재무정보를 공시 - 법인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로 연결하여 일반인의 접근성 높임
<p>연차보고서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보고서를 통해 법인의 세입·세출 내용, 사업성과 및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개
<p>소식지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로 발간되는 소식지를 통해 진행 중인 사업내용·성과와 사업비 금액 등을 공개
<p>후원자 대상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 대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건별 프로젝트 후원 기업 및 지정 프로젝트 고객후원자 대상 별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p>뉴스레터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 대상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법인의 사업내용, 진행과정, 사업비 관련 정보 등을 Communication

- **향후 추가 공개 정보 및 도입 제도**

Save the Children Korea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보 공개 항목에 추가하여 보다 더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항목의 정보 공개와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 도입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결의 내용 공시

이사회 개최 후 이사회 결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조직운영의 방향과 추진 내용을 후원자 및 일반인에게 알려 신뢰도와 투명성을 더 높임

사업평가결과 공시

그 동안 내부공시자료로 활용해 오던 사업평가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임과 아울러 사업의 지속가능성 증거자료로 제공함

조직구조 공시

법인 내부의 조직 및 그 조직 별 업무내용을 공시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리스크관리 강화

내부감시제도의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보강 방안을 모색, 리스크 관리를 강화 하고, ERP Scrapping System도입으로 자금흐름을 신속 및 적기에 파악하여 효율적 자금 운용에 대처함

중·장기 계획 공시

법인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공시하여 후원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후원자인 일반인도 법인의 향후 운영방향을 가늠케 함

IV.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Global Independent NGO로서

- 세이브더칠드런의 5대 행동가치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 비영리기관으로서, 공공 이익 달성에 기여하는 공적 존재로서 역할 수행하며
- 비영리조직의 책무를 완수하고, 조직 운영과 재정관리의 완전한 투명성 확보하여
- 후원자 및 잠재적 후원자인 일반인으로부터 완전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세계 아동들이 온전한 권리를 보장 받고 고통 받는 삶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도 영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samil
transparency
awards for NPO

foundation.samil.com

재단법인 삼일미래재단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번지 LS용산타워 Tel. 02-709-0548

© 2010 Samil Future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